

건축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Looking Back Upon 5th ACAE

FEATURE

전봉수 · 조인숙 / 국제위원회 위원

by Cheon, Bong-Soo & Cho, In-Sook



1. 처음에

금번 제5차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연례회의는 1991년 9월24일~25일 중국 북경시의 서북쪽 교외의 풍광이 좋은 향산(香山)마루터에 위치한 향산판티엔(香山飯店, Fragrant Hill Hotel)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호텔은 건축가 아이엠페이가 설계하여 AIA상을 수상한 바 있어 참석한 건축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24일 첫날 ACAE의장인 말레이시아(PAM)의 카시(P. Kasi)의 환영 및 개회사에 이어 각국 대표단 및 참관인의 간단한 자기소개로 금번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말레이시아(PAM), 중국(ASC), 방글라데시(IAB), 싱가포르(SIA), 스리랑카(SLIA), 대한민국(KIRA), 필리핀(UAP), 홍콩(HKIA) 및 파키스탄(IAP)의 9개 회원국과 처음으로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 일본(JIA)까지 모두 10개국에서 참석하여 정족회원수 6개국보다는 조금 넘는 9개국이 되어 정식으로 개최가 선포되었다. 25일 둘째날에는 인도네시아(IAI)가 합류하여 11개국에 참석하였다.

금번 우리협회는 국제위원으로 ACAE를 담당하고 있는 전봉수위원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국제위원 조인숙위원도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2. 본회의에서

1990년 인도 야그라에서의 회의록을 약간의 오자수정 및 문구조정 후 승인채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건축학도잼버리대회를 1990년도 뉴델리대회를 비롯하여 1986년 쿠알라룸푸르대회 및 1988년 서울대회의

- 문제점 토의 및 향후의 대회운영 지침
- 2) 차기 건축교육위원회(ACAЕ) 및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계획
- 3) 아시아지역 대학교 건축과 현황자료
- 4) 정기기술연구보고서(Research Journal)
- 5) 아시아지역 건축도서 정보센터의 운영
- 6) 아카시아 3개 지역의 활동상황(Sub-regional activities)
- 7) 회원국의 교육위원회의 활동상황, 구성 및 역할
- 8) 건축교육위원회(ACAЕ)의 향후 운영 방향

각 의제별 토의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90년도 아시아건축학도 잼버리대회를 개최한 인도건축사협회에서 참석자가 없었으므로 회원국 각국의 평가를 종합하여 보면, 대회운영에 문제가 많았고 대회내용이 빈약했으나 학생간의 교류관계는 괜찮았었다는 증론이었다.

향후 잼버리대회의 목적, 책임사항, 주제와 세부사항, 대표자 선정, 기금조성, 프로그램, 숙식, 주최국의 안내 및 수송, 입국허가 및 여행안내, 학생작품전시회 등의 항목에 걸쳐 장시간에 걸친 토의 후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운영지침”으로 채택하였다.

2) 1992년도 파키스탄 라호르(Lahore)에서 개최될 6차 아카시아건축교육위원회 및 4차 건축학도잼버리에 대한 계획을 주최국인 파키스탄(IAP)의 대표 칼림 시다퀴(Kalim A. Siddiqui)씨의 안내설명이 있었다.

21세기의 지역별 토속건축이란 무엇인가(What is the vernacular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에서의 새로운 방향제시”가 주제가 되며, 학생작품전시회도 있을 예정이고 채택된 대회운영지침을 따를 것을 부연하였다.

3) “아시아지역대학교 건축과 현황 자료집”에 수록한 내용은 이미 작년도에 인도네시아(IAI), 필리핀(UAP), 싱가포르(SIA), 대한민국(KIRA) 및 홍콩(HKIA) 등 5개국의 자료가 정리되었고, 나머지 회원국은 금년말까지 제출하도록 독려하였다. 출판경비 및 기타 제작비 등의 조달도 문제이거나 과연 팔릴 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 등 난제가 많아 일단 자료를 수합하여 보관본정도로 만들어 복사본을 회원국들에 배포하여 자료로써 활용하기로 했다.

4) ACAE회원국간에 정보 및 지식교류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회지(Research Journal)의 출판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발행횟수는 파키스탄(IAP)에서는 2년에 한번 내자고 제안했고 홍콩(HKIA)에서는 주최측이 매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연 1회정도의 의견이 많았다. 잡지의 내용은 홍콩(HKIA)은 매년 가장 우수한 건물을 소개하자고 했으나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ACAE모임 및 특별한 사항들의 내용을 신고, 회원국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출판물 하고 주최측이 비용부담을 하는 등의 얘기들이 오갔다.

결국은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발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지 잡지의 내용은 그 다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결론적으로 교육, 실무 및 새로운 정보 등에 관한 고정란을 둔 특별호 또는 별책부록형식으로 하여 매년 주최국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참고적으로 각 회원국의 회지출판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인도네시아(IAI)는 인도네시아어로 1년에 두세번 내고, 한국(KIRA)은 제목만 영문 포함한 한국어로 매월 출판, 홍콩(HKIA) 및 방글라데시(IAB)는 뉴스레터 정도로 연 1회, 말레이시아(PAM), 싱가포르(SIA)는 영어로 격월간으로 출간하며, 스리랑카(SLIA)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필리핀(UAP)과 파키스탄(IAP)은 내는 것이 없었다. 매월 회지를 발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KIRA)과 일본(JIA)뿐이었다.

5) 아시아건축도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의 사항은 그 효율성도 의심스럽고 코디네이터인 스리랑카(SLIA)의 자금 및 여타 사정으로 1992년 이후 회의중 고정도의 사항에서 삭제키로 하였다.

6) 3개지역 활동상황(Sub-regional activities)에 대해서는 아시아지역(간사국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남아시아 지역(간사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서는 지역활동이라기 보다는 자체활동인 디자인컴페에 대해 보고했는데, 이는 도시슬럼프구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중이라 했다. 동아시아지역(간사국 : 한국, 중국 및 홍콩)에서도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 이 지역 간사국인 KIRA는 이에 관해 3개국간에 정치적 관계로 직업적인 내용의 교류가 원만치 않음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 몽골리아, 일본, 마카오 등 세 나라가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속하므로 앞으로

동아시아간사국으로서 KIRA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할 수 있다.

7) 각 회원국의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개시 1개월전에 배포된 조사양식(참고자료 Agenda P.4)에 따라 각국의 구두로 보고 하였다.

KIAR는 연차보고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한국의 건축 3단체(건축사협회, 학회, 가협회)의 현재상황 및 역할에 관해 설명을 하였다. 또한 KIRA내에는 교육위원회의 조직이 없고 국제위원회내에 ACAE를 위한 소위원회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 내용을 보고할 때 매우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각국 보고내용중 교육위원회의 명칭이나 실무관련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IAP)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을 위한 유일한 조직이며, 대학교는 5년제이고 면허는 졸업 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고 했다. 방글라데시(IAB)의 IAP의 교육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학생교육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며, 홍콩(HKIA)은 2개의 위원회에서 분할하여 관장한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IAI)는 회원자격을 대학졸업 2년 후 부여하고 시험은 설계과목만 보고 면허는 IAI에서 추천받아 정부에서 관장한다고 한다. 싱가포르(SIA)는 면허시험이 따로 없다.

중국(ASC)에는 건축가(Architect+Engineer)가 10만명이라 했다.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건축가"의 정의가 우리의 인식과 같지는 않지만 인구비례로 보아 우리보다 다소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8) 건축교육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가. 각 회원국들의 건축교육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나. 각국의 건축교육체제를 우선적으로 인정

다.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장차 역점을 둘 일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3. 마무리에

회의종결 후 의장인 피. 카씨(P. Kasi)씨는 아카시아사회의에서 ACAE회의 결과 보고서 KIRA의 연차보고서 및 서울아시아 건축학도챔버리 대회보고서가 성실하고 상세하게 작성된 사실과 활동상황에 대해 상세히 언급을 하여 그간 몇 개월간 지고 있었던 짐의 일부를 더는 듯하여 홀가분한 느낌이 되었다.

작년 4차 ACAE회의 참석 후 참관기 형식으로 협회지에 보고서를 실었다. 끝마무리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 우리 협회가 교육분야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보이는 것은 매우 이상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은 본 협회가 전문직업인의 집단으로서 대학교육에 대한 역할에 무감각하지 않은가 한다. 분명 대학교육은 대학당사자와 문교당국의 소관인긴 하다.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타건축관련단체는 조직내에의 교육위원회 등을 두어 대학교육에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인 점도 있다.

우리 협회가 대학교육에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번 같은 국제적인 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미봉책에서가 아닌 보다 우수한 건축가 건축사의 모태가 결국은 대학교육이라는 원론적인 점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그후 1년. 대학교육에 관한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협회내 24개 위원회가 있어도 대학교육의 창구가 되는 기구는 없다. 설계경기운영분과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우수 학생작품선정을 위한 접촉과 관심이 전부가 아닌가 싶다.

학교 선생님은 평소에 가르쳤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범위에서 평가를 한다. 평소 아무런 교육투자 없이 갖춰업한 건축가 지망생의 실력을 운위할 수 있을까? 대학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협회가 시행하는 매년 한 차례의 우수학생작품선정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러한 작품선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 타 건축관련 단체의 대학교육에 대한 위원회의 유무를 알아 보았던 바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장구조학회, 한국전산공학회 등의 경우 교육위원회라는 조직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육위원회라는 조직이 협회나 학회의 구색갖추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전문직업인의 단체로서 후생(後生)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건축사헌장」에 「건축사는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다.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중에 후생에 대한 배려나 가르침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협회의 위원회조직에 「교육위원회」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